

박경리의 『토지』에 나타난 집 떠나기
모티프와 여성*

이 경**

차 례

1. 들어가기	3. 집 떠나기를 통한 자아와 세계의
2. 자아로 수렴되는 집 떠나기의 궤적	재구성
	4. 결론

국문초록

이 글은 『토지』에서 나타나는 여성인물들의 여행서사를 살펴봄으로써 식민지 근대를 배경으로 한 가부장제의 폭력과 이에 대응하는 여성주체의 성장과정을 검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가부장제는 집을 억압공간으로 만들고 여성은 집 떠나기를 통해 이에 대응한다. 집 떠나기는 남성중심주의의 폭력을 드러내는 것에서부터 남성중심주의의 자장에서 벗어나 자아와 세계를 발견하며 이에 그치지 않고 집 자체를 바꾸어내는 여성주의적 전망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제시한다. 사랑과 야심을 위해 집을 떠남으로써 욕망을 드러내기 시작한 여성주체들이 개인의

* 이 논문은 2015년 한국국제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 한국국제대학교 교수

존엄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각성을 거쳐 가부장적 권력의 장소인 집 자체를 허물어내기에 이르는 전 과정을 통해 집 떠나기는 단순한 장소이동이 아니라 가부장제의 억압에 대응하여 이를 벗어나려는 노력이자 저항이며 나아가 가부장제 자체를 바꾸어내는 능동성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 박경리, 토지, 여행, 집, 성장과 반성장, 낭만적 사랑

1. 들어가기

여성 삼대의 이야기를 축으로 삼고 있는 『토지』¹⁾는 그 문학적 성과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동의가 형성되어 있으나, 여성주의적 입장에 관해서는 극단적인 평가가 엇갈리는 소설이다. 그것은 반여성적 봉건이데올로기²⁾에 입각했다는 입장과 여성주체성의 발현³⁾이라는 입장으로 나뉘며, 후자의 경우에도 영원한 모성⁴⁾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와 여성주체⁵⁾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로 대별된다.

이 글의 목적은 집 떠나기 모티프를 통해 『토지』의 여성주의적 의미를 재조명하는 데 있다. 집과 길에 대한 여성주의의 이론적 성과에 입각

1) 이 글은 나남출판사의 판본(2002)을 텍스트로 하였다. 이하 인용에서의 숫자는 <권-면수>를 의미한다.

2) 김성희·성은애·이명호, 『『토지』에 나타난 여성문제 인식과 역사의식』, 『여성』 제3호, 1989.

3) 이상진, 『『토지』 연구』, 월인, 1999; 정현기, 『집짓기 공리로 소설읽기』, 『한국 소설의 이론』, 솔출판사, 1997 등.

4) 하웅백, 『비극적 삶의 초극과 완성』, 『한과 삶』, 솔출판사, 1994.

5) 이미화, 『박경리 『토지』에 나타난 여성하위주체의 저항』, 『한국문학논총』 제51집, 2009; 백지연, 『박경리의 『토지』-근대체험의 이중성과 여성 주체의 신화』, 『역사 비평』 1998 여름.

해서 여성인물의 집 떠나기⁶⁾를 살펴봄으로써 가부장체제⁷⁾에서 여성인물이 어떻게 세계와 소통하게 되는지를 탐색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설에서의 길 떠나기는 단지 가부장제로부터의 자유와 해방뿐 아니라 억압적인 가부장제를 비판하고 나아가 이를 변혁해내는 능동성을 매개한다. 이 연구는 『토지』에 나타나는 집 떠나기의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여성인물들이 가부장적 억압에 대응하는 모습을 유형화하는 한편, 이를 통해 여성인물들이 주체를 형성하고 세계를 재구성해가는 과정을 천착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⁸⁾

『토지』에서 집은 공간배경일 뿐 아니라 “가문, 가계, 혈통의 의미”⁹⁾를 지니며, 길은 이로부터의 이동을 의미한다. 가부장체제에서 여성의 여행은 오랫동안 금지된 영역이었다. 여행의 기획과 실천은 모두 남성의 영역¹⁰⁾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여성들은 비가시화되어 왔다. 『토지』의 시대

6) 여기서 길 떠나기는 그 시·공간적 범주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정주의 공간을 떠난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어 가출, 외출, 탈출, 도망, 여행 모두를 아우르는 의미로 사용한다.

7) 이 글에서 가부장제란 가족원에 대하여 가장인 남자가 지배·통솔하는 체제 혹은 이를 지지하는 체제를 의미하며, 광의로는 사회 전반에 걸쳐 연소자, 여자에 대한 남성의 권력을 지탱하고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 또는 그러한 원리에 기반하여 구성된 사회구조로서 여성에 대한 남성의 억압 체계 전반을 일컫는다. 문은미, 『페미니즘 사전: 가부장제』, 『여/성이론』 제2호, 2000.

8) 구한말에서 해방기까지의 시공간을 다루는 만큼, 『토지』에서는 금기에서 개방까지 다양한 여행의 스펙트럼을 발견할 수 있다. 서사의 진행은 여행에 대한 개방의 정도와 일치한다. 후반부의 경우 근대화와 개방이 점차 가속화되면서 여성인물의 외출은 상례화, 일상화되어 주체성의 추구라는 의미가 상당히 약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여성인물의 주체성을 탐구함을 목적으로 하는 이 연구에서는 구한말에 태어나고 성장한 전반부의 여성인물을 연구 대상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9) 이상진, 위의 책, 월인, 1999, 252쪽.

10) 근대 국민국가의 형성과 근대자본주의의 발달이 한창이던 19세기의 주요기획 중의 하나는 근대적 남성성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었다. 이전까지 남성성이 공손, 부드러운 노동하지 않는 몸이었다면 식민지 개척과 제국주의 확장에 따라 새로운 남성성이 필요했다. 배를 타고 이국으로 떠나는 용기, 타국을 침략하는데 필요한 힘, 과감한 결단력 같은 것이 남성성으로 부상했다. 이것은 제국주의 시대가 요구하는 미의 양식이었고 규범적 남성성을 실천하는 방식이었다.

역시 마찬가지였다. 여행은 늘 남성의 전유물¹¹⁾이었으며 여성들은 집안에만 배치되어 왔다는 점에 주목할 때, 여성의 여행은 지극히 일탈적인 사건이며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와 대치되는 사건일 수밖에 없다.

유포가 아니면 추방이라는 김명순의 말¹²⁾은 여성이 길을 떠나는 것의 의미를 잘 보여준다. 유포의 운명에 처단된 여자가 이에 저항하는 것은 곧 추방으로 귀결된다. 하지만 소설의 여성인물들은 추방을 스스로 선택함으로써 ‘유포’의 폭력성을 부각시킨다. 금기를 넘어서 이루어지는 여성의 여행은 바로 그 일탈성으로 인해 세계와 자아를 재인식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제공한다. 앨런 모어스가 문학에서의 여성주의가 이루어진 역사를 ‘집밖으로의 여행’이라는 은유로 설명하고자 함은 바로 이 때문이다.¹³⁾ J. B. Steadman이 여성의 주체적 가능성을 19세기의 여성여행 문학에서 발견하였던 사실도 이와 유사한 맥락을 가진다. 그는 여성들의 여행은 여성들을 착취하거나 억압함으로써 구성되는 권력의 체계에 대하여, 자신의 존립을 확보할 것을 최소한의 목적으로 그리고 그 체제를 재구성할 것을 최대한의 목적으로 추구하는 일련의 시도라고 주장한다. Steadman에 의하면 여행은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여성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부과된 제약들을 드러내게 만드는 계기가 되며, 성차별이나 인종 차별, 계급의 문제든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던 억압의 기제들이 여행하는 여성들의 삶과 기록에 의해 그 베일을 벗게 된다고 한다.¹⁴⁾

집으로부터의 일탈은 여성들의 각성과 유관하다. 여성들의 집 떠나기는 가부장적 억압으로부터 분리를 체험함으로써 수동적이고 의존적일

11) 실제 근대가 본격화되는 18세기 후반 이후 여성들의 여행과 경험은 활발하게 기록되었으나 대부분 남성 혹은 가족의 여행에 동반하는 수준에 한정되었다. 허윤, 『여성들의 여행』, 『여/성이론』 제17호, 2007 겨울, 200쪽 이하 참조.

12) 김명순, 「네自身的우해」 『생명의과실』, 한성도서, 1925; 김미현, 『한국여성소설과 페미니즘』, 신구문화사, 1996, 288쪽에서 재인용.

13) 김미현, 위의 책, 263쪽에서 재인용.

14) Jennifer B., Steadman, *Traveling Economies: American Women's Travel Writing*, The Ohio University Press, 2007, pp.4~5.

것을 강요받아 왔던 입장에서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자아의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동으로 이해될 수 있다. 여성인물들의 여행은 ‘감금으로부터의 탈출’과 진정한 자아를 추구하는 심리적 여행을 통해서 자신의 내적 가능성들을 인식하려는 의도로 해석되는 것이다.¹⁵⁾ 이런 의미에서 여성들의 여행서사는 성장소설과 일정부분을 공유한다. 집으로부터의 일탈은 보호공간이라는 집의 의미에 숨은 가부장제의 억압성을 드러내고 자아의 성장을 추동하는 계기가 된다.

하지만 떠난다는 사실이 반드시 성장을 담보하지는 않으며 이 점에서 남성의 서사와 구분된다.¹⁶⁾ 사랑, 욕망 등이 원인이 되어 가부장제로부터 일탈하는 길 떠나기는 남성중심성에 기반하고 있기에 실패의 위험성이 항존한다. 유편에서의 일탈을 추동하는 벡터 역시 남성중심성의 위험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다.

이에 이 글은 집 떠나기의 여성서사를 탐색함으로써 가부장제로부터의 일탈과 그것을 추동하는 사랑, 욕망 등에 숨은 남성중심성의 한계를 적시하고 이로부터 주체가 능동적으로 세계와 교섭해 나가는 과정을 떠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하에서는 {토지}의 집 떠나기를 자아로 수렴되는 경우와 집을 바꾸어내는 경우로 나누어 살펴본다.

2. 자아로 수렴되는 집 떠나기의 궤적

1) 집과 자아의 충돌; 사랑과 유혹

구한말을 배경으로 한 소설전반부에서의 여성인물들은 대개 사적 공

15) 김미현, 위의 책, 249~65쪽.

16) 분리가 곧 성장인 경우는 남성의 서사일 뿐이기에 여성소설을 반성장의 서사로 규정된다. 여성의 경우 성장이 아니라 오히려 생존이 문제되는 것이다. Linda Howe, “Narrative of Survival,” *Literary Review*, 26, 1982; 김미현, 『젠더 프리즘』, 민음사, 2008, 258쪽.

간에 유쾌되어 있으며 양반계층의 여성들은 더욱 그러하다. 집은 가부장 체제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장소이기에 여성인물들의 집 떠나기는 주체성을 담보하는 행위이다. 주체적 욕망을 가진 여성인물들은 집떠나기를 통해 이를 실현시킨다. 집떠나기는 사랑과 권력을 향한 여성인물들의 열망을 매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별당아씨, 월선이 등은 제도와 관습의 굴레에서 이탈하는 길 떠나기를 시작하는 인물들로, 사랑을 통해 자신의 욕망을 발견하고 실천하는 주체들이다. 양반가의 며느리, 정실부인, 어머니의 자리를 버리고¹⁷⁾ 사랑을 따른 별당아씨의 집 떠나기는 여성에게만 강요되어 온 정조관념에 대한 파기이자 저항이다. 물론 그녀의 집 떠나기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처벌의 결과이지만, 양반가의 며느리가 사실상 시동생이자 하인인 구천과의 사랑을 수용했다는 사실을 참조할 때 이는 주체적 결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 그녀의 불륜을 “규범을 뛰어넘을 수밖에 없었던 분신(진실) 찾기의 행동”¹⁸⁾이라고 규정한 작가의 설명은 이를 뒷받침하며, 별당아씨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 집을 떠난 이후에서야 가능하다는 것 또한 사랑을 통한 자아실현을 증명한다. 집 떠나기는 주체적 욕망의 발현이자 불륜으로 인한 처벌로부터 자기존립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출구인 셈이다. 월선의 집 떠나기 또한 사랑을 통한 자아실현과 연관되어 설명될 수 있다. 그녀에게 사랑은 자아를 드러내는 유일한 매개이다. 늘 수동적이고 순종적인 그녀가 ‘도저히 못살겠어서’라는 이유로 남편과 집을 떠난 것은 강력한 자기주장에 다름아니다. 수동성과 영원한 모성으로 추상화¹⁹⁾되어 존재하던 그녀가 유일하게 자신을 주장하고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용이를 향한 마음을 드러낼 때이다. 사랑은 자신을 발견하고 실현시키는 유일한 매개인 것이다.

길상에 대한 마음 때문에 길을 떠나지만 길 위에서 자아를 발견한다

17) 이미화, 위의 글, 240쪽.

18) 박경리, 『인간탐구』 『문학을 사랑하는 젊은이들에게』, 현대문학, 2002, 283~285쪽.

19) 김성희·성은애·이명호, 위의 글, 220~228쪽.

는 집에서 봉순이는 위의 두 인물과 구분된다. 길 위의 삶은 오히려 그녀의 숨겨진 욕망을 발견하고 이를 실현하는 계기가 된다. 방랑벽의 혈통과 분단장에 대한 매혹 그리고 타고난 소리의 재능이 기생되기로 이어지는 그녀의 궤적은 자아를 실현시키는 집 떠나기의 역할 뿐 아니라 집과 모성의 의미에 대한 질문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봉순이로서 길을 떠난 그녀는 기화란 이름의 기생이 되고 상현의 아이를 낳지만 그녀의 욕망은 그 너머에 자리한다. 재산을 얻어도 정착하지 못하며 아이를 낳아도 집에 머물지 못하는 것이다. ‘그 문전 나오면 고생밖에 할 기이 없’지만 바깥을 향할 수밖에 없는 그녀의 입장은 가정과 정착 그리고 모성을 새롭게 바라보게 한다. 집이 상징하는 보호, 정주, 모성 등의 위력을 현저히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사랑으로 인한 이들의 집 떠나기는 자아존립 혹은 자아발견이라는 주체적 궤적을 더 이상 펼치지 못한다. 집을 거부하는 여성들의 이탈은 주체의 내적 가능성을 확보하여 가부장제의 억압을 드러내는 대신 사랑에의 함몰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집을 떠난 이후 이들의 행위는 사랑의 폐쇄회로에 고착되는 것이다.

집을 떠날 때는 제 발로 걸어서였지만 그 후로는 늘 스스로 서지 못하는 모습으로 제시되는 별당아씨의 경우에서 이는 잘 드러난다. 가부장제에 대한 저항 혹은 주체성의 면모보다는 자기처벌의 성격이 강하게 드러난다.

나도 저 새들같이 날아보았으면, 산 속을 한번만 거닐어보았으면,
<4-251>

용이 돌아와서 이틀밤을 지탱한 월선은 정월 초이튿날 새벽에 숨을
거두었다. 어이구우 니가 이서방을 기다리노라 어이구우 이 불쌍한 것
아 <8-233>

집을 나왔다가 환이에게 업혀 다니는 과정을 거쳐 결국 방안에 드러

눅고야 마는 그녀의 말로는 오히려 집 떠나기라는 일탈의 의미가 차츰 축소되는 궤적에 가깝다. 위의 독백에서 보듯, 금기와 규율에 묶인 집에서 도망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유롭지 못하다. 걸을 수 있는 두 다리가 무력해졌기 때문이다. 이는 죄의식으로 인한 자기처벌의 은유로 읽을 수 있다. 모성을 위반한 죄의식과 질병의 고통은 길의 의미를 축소시킨다. 자신을 업은 환이의 등 혹은 그녀가 등 붙인 바닥 정도가 집을 떠난 그녀가 누리는 공간이다. 집을 떠나 세상 속으로 걸어 나온 그녀는 정작 길 위에서 스톱모션에 걸려버린 것이다.

월선이의 경우 결혼생활을 떠난 것에서부터 하동과 용정에 이르는 모든 집 떠나기의 배후에 자리하고 있는 것은 사랑이다. 그녀의 길 떠나기는 장소이동의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 그녀가 늘 ‘멀리 간다고만 하고 어디 간다는 말을’ 할 수 없는 것은 목적지가 용이이기 때문이다. 월선의 임종을 지키며 한 ‘니 여한이 없제?’라는 용이의 말에서 잘 드러나듯 월선에게도 길은 외부로의 개방이 아니라 사랑을 향한 폐쇄회로일 뿐이다. 길 떠나기를 재촉했던 그녀의 사랑이 용이의 무릎 위에서의 임종으로 귀결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사랑은 길 떠나기를 추동하는 동시에 멈추게 하는 계기이다.

석이에 대한 사랑으로 인해 봉순이 또한 사랑의 폐쇄회로에 갇히고 만다. 그녀에게도 사랑과 죽음은 동일한 궤적을 드러낸다. 석이와의 사랑으로 인해 그녀는 정주와 안정을 욕망하게 되었으나 그 사랑의 확인은 거꾸로 그녀의 죽음을 압박하는 힘으로 작용한다. 병든 자신으로 인해 그를 망치지 않으려는 사랑 때문에 그녀는 집을 떠나 자살을 선택한 것이다. 사랑을 대의로 승화시키는 남성인물과 달리 “세상에서 젤 아름다운 일”²⁰⁾을 감행했던 여성인물들의 말로가 죽음이라는 사실은 낭만적 사랑과 여성주체의 충돌을 잘 보여준다. 집을 떠난 사랑의 주체들이 수동적 대상화에 놓여진, ‘분열된 이중적 가치’²¹⁾가 지속되는 것이다. 길

20) 이는 환이가 별당아씨를 데리고 달아난 일에 대한 길상의 표현이다.

떠나기를 통해 사랑을 실현하고자 했던 그들의 꿈은 죽음으로 종결된다.²²⁾ 여성인물들의 길 떠나기는 외부로의 자기개방이 아니라 외부와 유리된 채 오직 사랑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며 남성에게로 자신을 함몰시키는 죽음으로 귀결된다.²³⁾ 아내, 며느리, 엄마로서의 역할을 떠난 별당아씨, 남편에게서 달아난 월선이, 평범한 아낙의 삶을 거부한 봉순이 등은 가부장제의 기율을 벗어난 일탈적 존재이지만, 이들이 길을 떠난 계기가 남성의존적인 사랑이라는 점은 길 떠나기의 능동적 의미를 무력화한다. 그 원천을 남자라는 중심에 양도하는 한, 여성인물들의 길 떠나기는 대상화와 피해자화의 운명을 피할 수 없다. 자식과 재산을 뒤로한 무성한 옥망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이들 스스로가 사랑의 주체가 되지 못한 것은 이들이 가부장제가 지배하는 가정과 그로부터 일탈하게 하는 낭만적 사랑은 남성중심주의라는 동일한 기반을 공유하고 있음을 간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의 길 떠나기는 경계이동이 아니다. 집이라는 경계를 넘었으나 남성의존적인 사랑이라는 경계에 스스로 함몰되어 버린 것이다. 사랑은 가부장제와 기율을 벗어나게 하는 추동력인 동시에 길의 의미를 무화시키는 계기인 셈이다.²⁴⁾

유흥을 위한 집 떠나기 또한 이와 같은 여성의 자기실현의 욕망과 실패라는 동일한 궤적을 그린다. 집이라는 공간에서는 불가능한 욕망인 유흥은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 수양딸, 근본 없는 천한 농사꾼 계집이라는 위치에 한정되거나 가정 내에서의 역할로만 설명되어온 여성의 다른 가

21) 백지연, 위의 글, 343쪽.

22) 이는 여성성장소설은 자아부정으로, 남성성장소설은 자아의 발견으로 대응된다는 점과도 상통한다. 김미현, 위의 글(1996), 252쪽에서 재인용.

23) 이경, 『<토지>에 나타난 질병의 젠더화 연구』, 『현상과 인식』 제31권, 2007년 봄, 163쪽.

24) J. B. Steadman은 19세기의 여성여행기록을 분석해보면 여성의 여행에 있어서는 그 여성을 제자리(in their place)에 놓게 하기 위한 사회적 장치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한다. J. B. Steadman, op.cit., p.4. 『토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들은 가부장제가 설치한 억압의 장치 속에서 그 틀을 깨지 못 하고 “제자리”로 돌아와 버린 것이 된다.

능성을 드러내는 매개이기도 하다. 특히 임이네의 경우, 이와 같은 집과 바깥의 분할은 극명하게 드러난다. 순절²⁵⁾을 명령하는 장소로 충격되는 집을 떠나는 것은 생존과 직결되는 절박한 시도이며, 그녀에게 다른 가능성을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일단 목숨을 부지한 뒤의 그녀가 용이와 재회한 것 또한 길 위에서이며 이 길 위에서의 만남은 그녀가 용이와 맺어지는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한다. 그것은 그녀에게 남은 여성성이 발현되는 계기이며 용이의 아들을 낳고 그의 부인이 되는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한다. 송애, 임이, 을레, 배설자, 배용자, 홍성숙 등의 경우 또한 마찬가지이다. 집/바깥은 예속/주인의 장소로 대별된다. 이들에게 집은 다른 삶의 가능성이 삭제된 장소에 다름 아니다. 집 밖으로의 외출은 주어진 상황에서의 예속을 벗어나 새로운 기획을 도모할 수 있는 가능성의 장소이며 여성성의 실행행사가 이루어지는 계기이기도 하다.

이 근동에서는 젤 부잔데 저 빌어묵을 계집이 또 꼬릴 치고 가는고나
(……) 저것도 화냥기가 있어서 큰일이다.(……) 촌구석에서 농사꾼 제
집이 분이 다 머꼬? <7-234>

얼굴에 분을 바른 임이의 외출은 꼬리치기로, 임이네가 밭에서 용이에게 ‘잡사보소’라며 무를 권하는 것은 ‘수작’으로 수용되는 데서 잘 알 수 있듯, 집 바깥으로의 이동은 화냥기로 번역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유혹 전략의 결과 임이네는 용이의 처로 자리잡으며 임이와 송애, 을레, 홍성숙 등은 일정 정도의 힘과 경제력을 갖추지만, 앞서 사랑의 경우가 그러하듯, 이와 같은 성취는 자기실현이 아니라 전략을 결과한다.

야, 꼬나풀인 사내하고 삼시로 (……) 길상 형님이 잤힌 것도 임이 소
행이라 카더마요 <15-53>

25) 이미화, 위의 글, 242쪽.

이들은 유혹을 목적으로 집을 떠나 친일로 귀결되는 유사한 경로를 그린다. 요정과 술집을 거쳐 그들의 유일한 가능성인 친일 꼬나폴들과 손을 잡는 것으로 이어지지만, 이는 오히려 뒷으로 작용한다. 돈을 버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재력이 무의미할 정도로 철저한 소외에 처단되어 가족과 이웃 모두를 잃는 철저한 전략으로 귀결된다.

집을 떠나 고급요정을 하는 을레는 그로 인해 딸이 겁탈당하는 ‘천벌’의 대상이 된다. 태생도 분명하지 않는 배설자와 배용자 자매의 거주지는 집이 아니라 여관이다. 삶 자체가 길 위에 이루어진 셈이다. 늘 주소지를 옮기며 남자를 유혹하여 이익을 취하고자 하지만 결국 거리에서의 비명횡사로 결말지어진다. 임이네의 경우 이와 같은 양상은 더욱 극단화된다. 집 바깥에서의 유혹은 그녀에게 새로운 삶을 도모할 수 있게 하지만 그녀는 일탈이 허락한 다른 삶의 가능성을 절단한 채 집으로 상징되는 끝없는 축적의 회로에 고착되기 때문이다. 더 오랜 삶, 더 많은 재산이 그녀의 지상목표가 됨으로써 그녀를 억압하던 가부장 권력처럼 그녀 또한 억압의 주체가 되어버린 것이다. 소유에 대한 그녀의 집착은 결국 가족을 비롯한 모든 것을 다 잃은 죽음으로 귀결된다. 그녀는 길 위에서 얻은 생명과 다른 삶의 가능성 모두를 집 안에서 잃은 셈이다.

집을 떠나 유혹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려 했던 이들의 전략은 가부장제 이데올로기가 악덕으로 규정한 유혹, 화냥끼 등에 대한 문학적 처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들의 유혹전략 자체에 이미 내장되어 있는 것이기도 하다. 주체성을 실현하는 근거를 손쉬운 권력에 양도하는 한, 그 실현은 요원하기 때문이다. 그들의 주체성은 집을 떠나는 순간을 제외한 길의 여정 어디에도 발견되지 않는 것이다.

이제 죽거나 나쁘거나에 처단된 이들과 달리, 개인의 존엄을 발견하기 위해 길을 떠나는 여성인물들의 경우를 살펴본다.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의 피해자가 아니라 능동적 주체되기의 가능성을 탐색해보도록 한다.

2. 집 떠나기를 통한 체모와 존엄 찾기

두만어미와 금녀의 집 떠나기는 개인차원의 자존을 찾기 위한 경우라 할 수 있다. 집에서 받은 모욕을 집 떠나기를 통해 해소하기 때문이다. 깔끔하기로 소문난 두만어미는 밥술에 밥알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일본 경찰에게 뺨을 맞는다. 이는 제국주의의 위생권력이 일상을 파고든 사건이라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두만어미의 대응은 주목을 요한다. 자신의 피해를 ‘큰 자식 없다고 업수이 보여 당한 봉변’으로 판단하고 아들을 만나러 상경한 그녀의 행동은 제국주의 경찰에 의한 이 피해를 그대로 수락하지 않으려는 나름의 대응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모욕과 수치를 입은 피해자로 남는 대신 이를 극복하려는 능동적 시도의 일환이다.

한달을 걸었다 카든가 보름을 걸었다 카든가, (……)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모르겠다마는 (……) 아들이 어매 기차 태워가지고 같이 온 것만도 두만 어매로서는 분이 반분이나 풀렸일 기고 동네사람한테도 체모가 쉰을 기고 <6-206>

여기서 집 떠나기는 자아회복의 중요한 매개역할을 한다. ‘여인네 몸으로 동네 밖을 모르고 살던 사램’이 ‘밀개떡을 한 보따리 해 이고’ 무작정 상경을 한 것은 경찰의 업신여김을 당한 수동적 피해자로 남는 대신 집 떠나기를 통해 자아를 회복하려는 선택이다. 공권력이 관통되는 집과 달리 길은 그녀의 체모를 살릴 가능성의 장소를 의미한다. ‘참말인지’라는 단서가 붙긴 했지만, 한 달여를 헤맨 끝에 기적적으로 만난 아들이 “어매 기차 태워가지고 같이 온 것”은 그녀가 겪은 모욕에 대한 해소에 다름 아니다. 스스로에게도 ‘반분이 풀리는’ 일이며 동네 사람에게는 ‘체모’가 서는 효과를 가져온 이와 같은 집 떠나기야말로 자존의식을 실천하는 여행이라 할 수 있다. 아들을 앞세워 모욕을 해소하려는 그녀의 욕망은 의존적인 것²⁶⁾이나 ‘동네 밖을 모르고 살던’ 그녀가 결단을 내린

집 떠나기의 의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수동적인 피해자로 남지 않고 자존을 회복하기 위해 스스로가 결단하여 길을 떠나고 ‘황소고집’으로 그것을 실현시켰다는 사실은 중요하다. 걸어서 떠났다가 아들과 함께 기차를 타고 돌아온 그녀의 행로는 금의환향에 값한다 할 수 있다.

심금녀의 경우, 남자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존엄성을 회복한다는 점에서 더욱 전진된 모습을 보여준다. 아버지에 의해 팔려간 이래, 그녀는 늘 남성에 의한 교환대상에 지나지 않았지만, 길 위에서 떠도는 과정은 젠더와 개인의 존엄에 대한 각성의 과정에 등가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방탕한 아버지에게서 밀정인 김두수로의 이동은 수동적인 것이었으며 그녀는 거래의 대상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녀가 그들로부터 탈출하여 첫사랑 윤이병에게로 향한 것은 그녀의 주체적 결단에 의한 이동이다. 거래와 교환 그리고 희롱의 대상에서 사랑의 주체이기를 선택한 그녀의 결단은 완고한 남성동맹에 부딪치게 되는데 이 경험은 그녀의 의식 각성의 결정적 계기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김두수를 피하여 그녀가 찾아간 윤이병이 그녀를 김두수에게로 넘기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후 더 이상 남성에 의지하지 않는 그녀의 변화는 이로부터 비롯된다. 그녀를 김두수에게 넘겨버린 윤이병의 행위는 사랑과 폭력이 다같이 남성 지배의 유사한 계열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녀가 목숨걸고 피하려던 김두수와 그녀가 사랑한 윤이병의 동맹은 첫사랑, 아버지, 집 등의 의미계열체가 가지는 남성중심성을 단적으로 증거하는 것이다.

그렇게도 집요하게 쫓던 여자를 사로잡았건만 김두수는 승리에 취할 수가 없었다. <9-394>

26) 이경, 「질병의 은유로 『토지』 읽기」, 『현상과인식』 제32권 4호, 2008 겨울호, 124쪽.

그녀가 장인걸을 비롯한 조직책의 납치에 흔들리지 않는 것은 이 때문이다. 납치는 오히려 김두수로부터의 해방이자 다른 삶의 가능성으로 수용된다. 사랑, 가정 등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고 장인걸이 주도하는 조직에의 투신을 통해 그녀는 자신의 삶에 존엄성과 가치를 기입한다. “아버가 딸을 술집에 팔아먹은 과거의 그 비정한 추억이, 애인을 짐승 아가리에 넣으려던 잔악한 사내의 추억도 이제 말끔히 가셔지고 없다. <8-315>”는 독백은 과거를 극복한 그녀의 변화를 잘 요약한다. ‘절망과의 대결’을 통해서 그녀가 어렵게 발견한 희망의 이름은 존엄이다. 김치수에 의하면 존엄은 자기 스스로가 가장 숭고한 것을 지키는 것이다.²⁷⁾ 아버지의 ‘비정함’과 애인의 ‘잔악함’을 말끔히 극복한 자신의 존엄을 발견한 것이다.

그녀의 자살이 단순한 패배를 의미하지 않는 것은 이에 기인한다. 누구도 자신을 파멸시킬 수 없다는 자기확신이야말로 그녀의 존재를 기반하는 토대이다. 물리적인 힘과 권력에 의지하는 김두수는 패할 수밖에 없다. 불안정한 심리의 징표²⁸⁾인 두수의 무자비한 구타는 곧 금녀를 지배할 수 없다는 인식 때문이다. 그녀의 자살은 절망적인 과거로 자신을 퇴행시키려는 김두수의 폭력에 대항하는 유일한 방법이며 자신의 존엄성을 실현시키는 선택이다. 애초의 집 떠나기는 남성에 의한 수동적인 것이었지만 반복되는 이동을 통해 그녀는 외부를 만나고 발견하며 그 결과 개인적인 존엄의 각성을 향해 나아간 것이다. 비록 죽음으로 귀결되지만 이는 패배의 징후이거나 처벌로서 주어지는 외부의 명령이 아니라 스스로가 선택한 존엄사이기에 자기실현의 일종으로 수용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여성의 자아를 종속시키는 집을 떠나 길에서 자아를 실현시키는 여성인물들의 행로를 살펴보았다. 이제 길에서의 발견으로 공적 자아의 발견과 집의 변화를 도모하는 여성인물들의 경우를 살펴본다.

27) 김치수, 위의 글, 186면: 이상진, 위의 책, 28쪽 각주 8에서 재인용.

28) 이상진, 위의 책, 72쪽.

3. 집 떠나기를 통한 자아와 세계의 재구성

1) 집 떠나기를 통한 자아확장

명희와 인실 등의 길 떠나기는 개인 차원의 자존을 공적인 것으로 확장시키는 것으로, 사적 실패에서 공동체적 각성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드러내는 유효한 매개 역할을 한다. 동경유학을 다녀온 신여성인 명희는 귀족인 조명하와 결혼하여 중인계층에서 귀족으로 신분이 상승하는데 외출은 외견상 화려한 결혼생활에 숨은 허위와 구속성을 드러내는 계기 역할을 한다. 명희의 외출이 교회에 한정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차를 이용해야 한다는 사실은 결혼의 구속성을 의미한다. 특히 우연히 만난 시동생과 함께 자동차를 타고 귀가한 것에 대한 남편의 폭력적인 반응은 이를 잘 설명한다.

외출의 반복은 화려한 외관 아래 숨은 감시와 구속이라는 결혼의 맨 얼굴을 보게 하는 역할을 하며 바로 이 때문에 외출은 가출, 탈출로 이어지는 일탈의 전조를 이룬다.²⁹⁾ 수동적 외출과 달리 주체적 행위인 가출은 즉각적인 응징을 초래하게 되는데 남편이 가출한 명희를 별장으로 유인, 능욕한 사건이 이를 잘 설명한다. 집은 감금과 폭력의 공간이며 남편에 의한 능욕을 가정사로 방어하는 공간인 것이다. 이후 이루어진 그녀의 가출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 ‘탈출’이 된 것은 바로 이 사건으로 인해서이다. 이는 자아와 세계에 대한 새로운 발견으로 이어지며, 이는 ‘갇혀 있던 벽을 뚫는’ 진정한 길 떠나기에 값한다.

이제부터 넌 사람이 된 거다. 네가 갇혀 있던 벽을 뚫은 거야,
<14-112>

29) 이 점에서 명희를 “어정쩡한, 이런 면에서 유인실과 대조되는, 섬약한 인물”로 단정내린 송호근의 말은 단지 서사의 전반부에 대해서만 타당하다. 송호근, 『삶에의 연민, 限의 美學』, 『작가세계』 1994 가을, 52쪽.

나는 살아 있는 생명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허깨비, 그것에 매달리어
내 아픔, 남의 아픔에도 눈감고 살아온 거예요. <21-332>

자살의 시도와 그 이후의 오랜 잠은 상징적 죽음을 의미하며 이는 새로운 출발을 암시한다. 과거의 삶을 ‘살아있는 생명이 아니었던 허깨비’의 삶으로 규정하며 ‘화분이 아닌 사람’의 삶을 다짐하는 것은 이를 잘 보여준다. 그것은 사랑과 창조의 능력으로 표상되는데 이는 “가족과 남을 위해서 일한 적이 없는” 자신의 삶에 대한 반성으로 드러나며, 지리산을 향한 길 떠나기는 바로 그 실천의 일환이다. ‘허깨비에 매달려 내 아픔과 남의 아픔에 눈 감고 살아온’ 것에 대한 회한은 ‘전염병처럼 번지기 시작한 이 땅의 식량난’에 눈을 돌리게 하며 그 연장선상에서 ‘오천원’의 기부가 이루어진 것이다. 외출은 가출로, 가출은 탈출로, 탈출은 자신을 찾기 위한 여행으로 이행되며 바로 이 과정을 통해 개인을 넘어선 사회적 책임의 각성을 하게 된 것이다.

사회주의 운동가인 인실은 늘 길 위에 있기에 떠나기란 말이 무색할 정도지만 그녀 역시 사랑에 의해 정주적 삶의 유혹을 받는다. 일본남자를 사랑하기 시작하면서 인실이 “자신의 발이 작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그 증거이다. 독립운동을 하는 그녀가 일본인을 사랑하여 그의 아이를 낳은 것은 머무르고 싶은 유혹에 굴복한 것이나, 그녀는 아이와 모성, 사랑과 가정이 아닌 길 위에서의 삶을 선택한다.³⁰⁾ 작은 발에도 불구하고 질병이라는 상징적 죽음을 통과한 후 사랑과 모성을 넘어서는 대의를 향해 나아간 것이다.

이처럼 명희와 인실은 집 떠나기를 통해 생존을 뒤흔드는 고통에서 비롯되는 개인 차원의 존재증명을 공동체의 윤리로까지 확장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독립운동이란 대의와 기부금 기탁으로 귀결되는 이들의 길

30) 이와 관련하여 허연실, 『박경리 <토지>에 나타난 “민족모성”과 비체 - 유인실의 “주체 되기”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제53권, 2013, 341-361쪽, 특히 350~353쪽 참조.

떠나기는 다소 추상적이고 관념적이라는 한계를 지닌다. 집이라는 정주적 공간의 유혹과 폭력성은 매우 구체화되어 있는데 비해, 길 위의 삶은 대의, 기부 등으로 명사화, 관념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건 혹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기보다는 길 위에서 풍문처럼 제시되는 대의는 구체적 실감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다. 길과 집을 접합하는 윤씨 부인과 서희의 길 떠나기는 이를 보다 구체화한다. 신분을 넘어선 결혼과 지주에서 장사꾼으로의 변모를 통해 집의 벽을 허물어내고 집과 길을 통하게 한다.³¹⁾

2) 집 안에 길 내기

절에 가는 것 외에는 바깥 출입을 거의 하지 않는 윤씨부인의 경우, 절에 가는 것은 아들의 명을 빌기 위한, 지극히 모성적인 의미를 가지는 외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집 바깥의 장소에서 외부의 시선에 그녀가 노출되는 중요한 계기 역할을 한다. 가부장적 질서의 공간인 집 안에서는 아들의 어머니이자 정절을 지켜야 하는 과부이며 한 집안의 며느리이지만 집이라는 범주를 벗어난다는 사실은 여성으로 의미화되는 가능성을 지닌다. 바로 이 외출의 장소에서 여성으로 노출된 그녀는 겁탈이라는 횡액을 당한다. 자살 시도, 임신, 출산, 아이 버리기 등 겁탈과 그 이후의 사건들은 모두 여기서 발생하고 처리되며 그녀가 집으로 돌아오는 것은 이 모든 일들을 괄호 속에 묶음으로써 가능하다.

그녀는 다시 집으로 돌아오지만, 돌아온 그녀는 떠날 때의 그녀가 아니다. 그녀의 변화는 정조 상실의 죄의식에 기인하지만 동시에 이에 대한 저항과 반작용 또한 함축한다.

31) 물론 독립운동에 관한 언급은 서희의 경우에도 명사화, 관념화되지만, 신분차이의 극복과 타자를 포용하기 위한 노력이 집안에서 실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명백히 구분된다.

뻔쳐줄 어머니의 손길을 결박당한 채 감내해온 긴 세월이 윤씨는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지 생각해보는 것이다. <1-291>

무슨 까닭으로 자애스럽던 어머니는 남보다 먼 사람이 되어버렸는지 모를 일이었다. <2-70>

절에서 돌아온 그녀가 아들에게 ‘남보다 먼 사람’이 되어 ‘이유를 알 수 없는 거부’를 드러내는 것은 죄의식 때문이다. 바깥에서 오염된 정절과 모성은 집에서의 여성성 버리기를 결과한 것이다. 겁탈로 인해 정절은 깨어지고 아이를 버림으로써 모성 역시 균열되었기에 여성성은 그녀에게 금기일 수밖에 없다. 그녀가 여성성을 팔호 속에 묶고 집안을 일으키는 주체로 자리하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다. 그녀의 존재가 ‘어머니의 손길’ 보다는 ‘권위와 담력과 두뇌’를 사용하는 존재로 부각되며 ‘여자답기보다는 선비같은 풍모’로 설명되는 데서 잘 알 수 있듯, 그녀는 여자로서이기보다는 최참판댁을 일으키고 다스리는 주체로 자리잡는 것이다. 서희와 함께 한 윤씨부인의 마지막 나들이 또한 “너의 땅을 눈여겨 보아 두어야 하느니라”는 그녀의 말이 잘 설명하듯, 당주의 자리를 계승하는 의례적 성격의 외출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그녀의 집지는 지배계급의 온존에만 기여하는 한 주체적³²⁾인 것으로 설명되기도 하나, 훼손된 주체성을 회복하는 여가장의 면모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최참판댁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할지라도 여가장 되기가 그녀의 존재를 스스로 증명한 행위인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절의 상실로 인해, 모성성성과 여성성을 부인한 삶으로 일관하였지만, 윤씨부인은 단순히 내면화된 가부장제 가치관에 침몰당한³³⁾ 존재로 규정되지는 않는다. 그녀는 정절이데올로기를 허물어내는 주체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정절을 잃었다는 사실과 아이를 버렸다는 사실을 은폐한 채 최참판댁의 구심점 역할을 해온 그녀 자신이 이미 최

32) 김성희 · 성은애 · 이명호, 위의 글, 205쪽.

33) 이미화, 위의 글, 242쪽.

참판댁의 권위를 균열시키는 존재라 할 수 있다. 그녀는 자신이 일으키고 유지한 가문이 허약한 정절이데올로기에 기초한 것임을 알고 있는 주체이며 이로 인해 최참판댁은 ‘외부’가 들어올 수 있는 균열의 장소로 변화한다. 순수의 유령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김개주, 환이 등 오염된 외부가 들어 올 수 있는 집안으로 바뀌는 것이다. 그녀의 일탈이 또 다른 길 떠나기로 이어진다는 사실 또한 이를 뒷받침한다. 불륜으로 고방에 갇힌 며느리와 환이가 달아날 수 있도록 길을 내어준 존재 역시 그녀이다. 즉, 윤씨부인은 가장 없는 집안의 가문과 땅문서를 공고히 함으로써 집을 세우는 존재인 동시에 그 문을 열어 길을 터 주는 존재인 셈이다.

윤씨부인에게 있어 길 떠나기는 여성성의 노출이며 집으로 돌아오는 것은 오염된 정절과 모성을 비밀로 봉합하고 주체가 되는 것을 의미하지만, 사회에게 있어 양자는 충돌사안이 아니다. 그녀의 집 떠나기는 당주-되기와 여성-되기를 포괄한다.

손님이 소중하지 않은 바는 아니나 사회는 이 집의 임자니라. 경망하게 어디를 옮기겠느냐? 정 자네들이 불편하다면 돌아가게 3-302

“경망스럽게 어디를 옮기겠느냐”라는 말에 잘 드러나 있듯 부동의 중심이었던 그녀의 집 떠나기는 먼 친척인 조준구에게 집을 빼앗기면서 시작된다. 집과 땅, 그리고 가족들이 조준구에게로 넘어가면서 집은 피해와 모욕, 그리고 분노의 공간으로 변한다. 자신의 지위와 존엄을 보장 하던 공간이 침범당한 데 대한 분노는 길 떠나기를 추동한다. 물론 그녀의 집 떠나기는 어디까지나 돌아오기 위한 방법에 지나지 않으며 그녀의 의식은 집과 정주에 고착되어 있다.

난 하동으로 돌아가야 할 사람이다. 살을 찢고 뼈를 깎고 피를 말리는 고초를 겪는 한이 있어도 나는 내가 세운 원(願)을 잊어서는 아니된다

다. 내 살을 찢고 내 뼈를 깨고 내 피를 말리던 원수를 어찌 꿈속엔들
잊으리! <5-214>

집을 되찾는 것은 원수를 갚는 일인 동시에 침범당한 경계를 수습함으로써 자신을 구성해온 핏줄의 역사와 자신의 정체성을 복원하는 일이다. 집이 ‘낮을 묻을 곳’이 되는 것은 이런 이치에서이다. 그녀가 떠나는 길 위에서도 집과 주인권력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이런 목표와 유관하다. 길상과 월선의 보호와 봉순이의 엄호 하에 부동의 중심이라는 위치를 조금도 손상시키지 않고 분명한 위계 하에서 길을 떠나는 것이 이를 잘 보여준다. 이동과 이주에 필수적인 자금의 대부분이 그녀에게서 비롯한다는 사실과 마차라는 이동수단의 특성은 그녀라는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유지하는 근거라 할 수 있다. 이주지인 용정에서의 생활 역시 엄정한 위계 하에서 이루어지며, 임시거처인 용정의 집을 ‘천년 만년’의 정주를 위한 집처럼 만든 것은 길을 장악한 그녀의 악력을 증명한다.

하지만 집 떠나기는 하나의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한다는 공간적인 의미뿐 아니라 이전과는 다르게 생각한다는 정신적인 의미도 포함³⁴⁾ 하며 서회 또한 예외가 아니다. 중심의 기울을 바꾸어낼 기미는 용정을 향한 배 위에서 그 최초의 가능성을 드러낸다. 마차를 타고 부산으로 향할 때는 길상과 월선을 거느린 중심의 위치를 고수하였던 그녀가 배를 타면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한 것은 이를 잘 보여준다. 전근대적인 공동체인 평사리를 떠난 적 없었던 그녀에게 바다는 근대라는 전혀 새로운 세계를 상징하며 배는 이를 매개하는 이동수단이다. 그녀의 흔들림은 근대의 충격으로 인한 균열의 시작으로 볼 수 있다. 여행은 친숙한 세계를 떠나 새로운 세계와 만나는 일탈행위이다. 뿐만 아니라 인간이 세계를 여행한다는 것은 젠더와 함께 여행한다는 것이며³⁵⁾ 서회 또한 마찬가지로

34) 김미현, 위의 책(1996), 263쪽.

35) Lynn Pearce, *Regarding Dialogics*, Lancastes University Press, 1994, p.175: 김미현, 위의 책(1996), 263쪽 각주 30에서 재인용.

다. 중심의 위상보다는 피보호자로서의 연약성과 의존성이 그녀에게 드러나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이다. 그녀는 길상과 상현, 그리고 자신이 만들어내는 남녀관계의 자장에 들어서며, 배멀미는 이와 같은 의미의 여자-되기를 의미하는 표상이다. 아픈 그녀를 둘러싸고 형성되는 상현과 길상 간의 시선의 싸움은 이를 잘 설명한다.

멀미는 젠더를 표상하는 동시에 그녀가 최참판댁의 핏줄로 누려왔던 특권에 대한 백지화의 은유로도 해석될 수 있다.³⁶⁾ 이는 용정에 도착한 이후 거상으로의 변화, 그리고 길상과의 결혼과도 맞물린다.

“대부분 두만강 연변에서 건너온 이곳 사람들은 남도 사람들처럼 반상을 가리는 기풍이 없는 것 같았다.”<4-28>

용정이라는 낯선 공간은 하동에서와는 다른 사고와 윤리를 새겨 넣을 가능성을 의미한다. 최참판댁의 복원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새롭게 구성할 가능성을 뜻하는 것이다.³⁷⁾

용정으로 향할 때 젠더의 영향 하에 흔들리기 시작한 중심의 권위는 회령을 향하면서 완전히 무너진다. 길상의 여자가 있는 회령으로 가기 위해 마차에 오를 때 사람들의 눈에 각인된 그녀의 ‘귀여운 구뎃발’은 여

36) 고향에 대한 애착과 뿌리내림(rootedness)을 설명하는 Yi-Fu Tuan에 의하면 조상숭배를 비롯한 토속적인 유형의 종교는 “장소의 계보와 연속성에 대한 강렬한 느낌”을 부여하며 이로부터 안전하다는 인식이 나오게 된다고 한다. Yi-Fu Tuan, 위의 책, 244면. 이렇게 본다면 서희의 배멀미는 이런 안전으로부터의 이탈 즉, “역사적으로 연속적이라는 느낌”의 단절에서 연유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37) 주미사의 말처럼 여행은 관습과 문명을 상대화시킴으로써 “사회 정치적으로 확고하다고 자부하는 것들을 무력화시키는 힘이 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여성에 대한 억압을 바탕으로 유지되던 권력체제조차 재구성하는 가능성을 제시한다는 J. B. Steadman의 말은 여기서 타당하게 된다. 주미사, 『실제적 여행기에서 상상의 여행기로』, 『불어불문학연구』 제50집, 2002, 532면; J. B. Steadman, *op.cit.*, p.5.

자-되기의 표상에 다름 아니며 이와 같은 변화는 계층과 신분을 무너뜨린 사랑의 실현을 결과한다. 하인이었던 남자와의 사랑을 실현시키는 것의 의미는 단순히 사랑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것은 신분을 넘어서는 일이고 자신이 기반한 가문을 부정하는 일이며 자신을 둘러싼 세계와도 거리를 두는 일이다. 혼자 길을 나선 그녀가 되뇌이는 ‘나는 고아’라는 독백은 길상이 곁에 없다는 의미를 넘어 이런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나는 고아다. (……) 서희는 스스로, 자기 자신마저 질곡에서 풀어버린 것이다. 용정에 쌓아 올려놓은 자기 성으로 돌아간다면 또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으나 그 끈질긴 숙원과 원한에 사무친 보복심과 잠들 수 없는 자궁을 내어버린 자유, 무겁고 숨막히는 철갑을 벗어버린 자유다.
<6-116>

자신이 쌓아올린 자기의 성이 있는 용정과 달리, 회령은 그만큼 덜 구속적이고 더 개방적인 공간이다. 낯선 고장을 혼자서 걸으며 느끼는 고아의식이 곧바로 철갑을 벗어버린 자유로 이전하는 것이 이를 잘 보여준다. 그녀는 최참판댁 유일무이한 핏줄이라는 권위와 질곡에서 이탈하여 ‘다 버리고 떠날 수 있는 자유’를 각성한다. ‘마차가 뒤집히는 사고’는 이와 같은 자유를 실천하는 결정적인 매개라 할 수 있다. 이 사고로 인해, ‘죽지 부러진 새’ ‘망가진 인형’이라는 은유가 잘 설명하듯, 서희와 길상은 더 이상 주인과 하인이 아니라 보호자/피보호자라는 남/녀의 구도 속에 완전히 편입된다. 양반 혹은 주인권력의 위상은 길상과의 신분 차이를 넘어선 사랑과 결혼의 실천으로 그 경계를 허문 것이다.

그녀의 결혼은 자본주의 영향하의 개방적 공간³⁸⁾인 용정을 배경으로

38) 조운아는 『토지』에서의 용정은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개방된 공간으로서 상처가 회복되고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기도 하는 생동하는 공간”으로 규정된다고 본다. 조운아, 『공간의 성격과 공간 구성』 최유찬 외, 『토지의 문화지형학』 소명출판, 2004, 197쪽.

할 때 가능하며 “명색이 양반이면 사내도 못 할 것”인 장사 또한 마찬가지다. 재원을 확보하는 일은 곧 하동으로의 귀향과 직결된다. ‘사방으로 축수를 뺀고 있는 예리한 신경과 직관으로’ 그녀는 자본을 배로 확장시킨 거상으로 자리잡으며 이와 함께 그녀의 귀향준비 또한 완료된다. 최초의 부르주아인간이라 할 수 있는 오디세우스³⁹⁾처럼 그녀는 전리품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완료한 것이다.

하지만, 떠나올 때와 그녀의 귀향은 단순한 집 찾기에 국한되지 않는다. 집을 되찾는 일은 침범당한 경계를 회복하고 원수를 갚는 일이지만, 그녀가 돌아가야 할 집은 그녀가 떠난 집과 동일하지 않다. 집 떠나기는 빼앗긴 집과 농토를 되찾기 위해서 시도된 것이지만 그로 인해 그녀는 외부에 자신을 개방하는 새로운 경험을 축적하게 된 것이다. 집 떠나기는 그녀를 변화시켰으며 그 결과, 다시 찾은 집은 길을 품은 집으로 변모한다.

집이 외부를 품기 시작한 징후는 신분을 극복한 결환과 거상으로의 변모 이전에 이미 드러난다. 그녀는 안방에 앉아서 세상을 철한다. 그녀는 외출하는 법이 거의 없지만 그녀의 집이 윤희의 공간이 아닌 것은 이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안방에 앉은 서희는 축수와도 같은 그 예리한 신경을 사방으로 뻗쳐 삼년 동안 자본을 두 배로 늘리는 데 성공했다. <5-81>

일 년 내내 외출이라고는 거의 없었던만 (……) 새로운 것이면 사들였고 낙타 망토, 여행용 가방, 핸드백 따위에 이르기까지 서희의 취미는 (……) 긴장된 나날의 삭막을 건디어나가는 일종의 숨구멍 같은 것이나 아니었던지. <5-253>

그녀가 사들이는 박래품들은 “긴장된 나날의 삭막을 건디어나가는 일

39) 클로디 아펠, 이세진 역,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의 오뒷세이아』 열린책들, 2014.

종의 숨구멍 같은 것”⁴⁰⁾이라는 그녀의 독백 또한 같은 맥락을 지닌다. 안방에서의 소비는 집안에서 길떠나기를 실현하는 일이다. 일 년 내내 외출은 없지만 행장을 위한 물품들을 많이 사들임으로써 그녀는 세상과 소통한다. 이와 같은 호사취미는 집안에서 길 떠나기를 시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녀는 집을 되찾는 일만이 아니라 집안에 길을 뚫음으로써 집을 변화시킬 준비 역시 더불어 진행하는 것이다. 절을 방문하는 이유가 ‘세상 돌아가는 물정’을 읽기 위해서일 뿐 아니라 ‘그 일’(할머니와 김 개주의 관계)로 인한 충격의 치유를 위해서라는 사실도 마찬가지다. 이는 그들의 삶을 이해하고 수동하려는 노력에 다름 아니다.

평사리 집의 변화는 이와 같은 노력의 연장선상에서 설명될 수 있다. 서희는 잃어버린 최참판댁을 되찾았을 뿐 아니라⁴¹⁾ 동시에 그 벽을 허물어 길을 내는 존재이기도 한 것이다. 장사를 통한 치부, 그리고 신분 차이를 넘은 길상과의 결혼과 그 이후 성을 바꾸어 최씨 가문을 유지하게 한 것은 가문의 보존⁴²⁾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윤씨부인에서부터 비롯된 균열과 이에 토대한 새로운 길 내기를 시도하는 일이다.

“필시 종의 계집이 될 서희”라는 상현의 일갈과 “못 시선 속에서 뿌리를 썰어대는 톱질소리”를 듣는다는 서희의 독백이 잘 보여주듯이, 길상과의 결혼으로 양반이라는 그녀의 신분은 뿌리째 흔들린다. 장사꾼-되기와 종의 계집-되기를 선택한 그녀 자신이 이미 뿌리를 부정하는 존재, 즉 ‘뿌리를 썰어대는 톱질’의 객체가 아니라 주체이다. “종을 최서희 윗

40) 1920년대의 소비문화를 옹호하였던 박팔양에 의하면 “근대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서 감각의 위안을 빼앗는다면 그것은 너무나 가혹한 형벌”이다. 박팔양, 『소위 모-던 뽀이 촌감(寸感)』 『별건곤』 12월호, 1927; 김정일, 『여성의 근대, 근대의 여성』 푸른역사, 2004, 228면에서 재인용. 이렇게 본다면 서희의 소비는 변화하는 시대와 소통하는 하나의 방식인 것이다.

41) 이 점에서 집은 “보호의 영역이며 기억과 꿈의 저장고”라고 하는 Yi-Fu Tuan의 명제는 분명한 의미를 가진다. Yi-Fu Tuan, 구동희·심승희 역, 공간과 장소, 개정판, 대운, 2007, 267쪽.

42) 김성희·성은애·이명호, 위의 글, 222쪽.

자리에 앉힐 테다”는 그녀의 독백은 가문의 권위를 뒤엎는 단적인 예다. 가문의 존속, 승리를 위해 돌아왔지만 자신이 사당문을 열고 조상께 고할 말이 없는 것은 이 때문이다.

최참판댁의 말로는 세 여자로 인하여 난도질을 당한 것이라고, 윤씨는 불의의 자식을 낳았고 별당아씨는 시동생과 간통하였으며, 서희 자신은 하인과 결혼하여 두 아들을 낳았다. (……) 기둥뿌리도 기왓장도 모조리 들린 것처럼 불행의 연속이었던 그 집을 떠나 (……) 가문의 존속, 영광을 위해 돌아왔지만 막상 돌아와보니 서희에게는 사당문을 열고 조상에게 고할 말이 없었다. <9-333~4>

바슐라르에 의하면 집을 둘러싼 벽이 지나치게 높고 두꺼우면 닫힌 공간, 감옥에 가까운 공간이며 그 벽이 낮거나 얇으면 집의 내부는 별판과 다름없는 개방공간이 된다.⁴³⁾ 최씨 가문은 여인네들로 인해 ‘난도질’ 되었지만, 벽을 부수는 바로 이 난도질로 인해 서희가 되찾은 집은 개방공간으로 변모한다. 거주지를 떠나지 않는 한 개인에게는 여전히 봉건적 신분제의 영향이 남아 있다⁴⁴⁾는 점을 감안하면 신분을 뛰어넘은 결혼과 장사를 통한 치부라는 그녀의 이력은 곧 담을 부수는 일에 다름 아니다. 불의의 자식을 낳은 할머니인 윤씨부인과 시동생과 간통한 어머니 별당아씨는 모두 금기를 피해 집을 떠났으나 서희는 집 안에서 금기를 가로지른다. 이 점에서 어머니와 김환을 생각하여 “일생동안 거의 흘리지 않았던 눈물의 독이 터진 것”은 관습, 제도, 통념의 속박을 벗어나는 ‘해한’이라고 한 정호웅의 해석⁴⁵⁾은 타당하다. 할머니에게서 시작된 집 허물기와 길 내기는 어머니를 거쳐 서희에게서 완성된다. 하인과 결혼함으로써 그녀는 가문의 금기를 허물어버리고 오히려 집 안에 신분파괴라는

43) 가스통 바슐라르, 곽광수 역, 『공간의 시학』, 민음사, 1990, 157쪽 이하 참조.

44) 이상진, 위의 책, 50쪽.

45) 정호웅, 『『토지』의 주제-한(恨)·생명·대자대비(大慈大悲)』 『한·생명·대자대비』 술출판사, 1995, 212~213쪽.

새로운 길을 낸다.

그녀가 살고 있는 진주의 집이 ‘창이 많은’ 구조라는 것 역시 이와 유관하다. 그녀는 집을 찾음으로써 자신의 존엄을 증명하였고 또 신분, 계층의 벽을 허물어냄으로써 그 집에 새로운 길 내기를 실천한다. ‘자연에 맡긴’ 집은 길로 개방된 집이다. 이는 서회의 생애행적이 개인의 집짓기에서 우주의 집짓기로의 자각과정을 보인다는 해석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⁴⁶⁾ 귀향한 이후 봉순이, 엽이네, 남희 등 사회적 ‘약자’를 거두는 모습이 자주 제시되는 것과 길 떠나는 독립군에게 자금을 대는 것 역시 이의 연장선상에서 해석될 수 있다. 서회가 길상이 조성한 관음탱화를 닮을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4. 결론

이 글은 집 떠나기 모티프를 통해 『토지』의 여성주체를 재검토하려는 시도였다. 집과 길은 젠더가 구획되고 해체되는 매개라는 점에 착안하여 여성인물들의 집떠나기 양상에 주목한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여 결론으로 삼으면 다음과 같다.

우선, 사랑과 유혹에 의한 집 떠나기를 살펴보았다. 별당아씨의 도주를 필두로 가부장제의 금기와 기율에서 이탈한 여성인물들이 정작 길 위에서 스톱머신에 걸린다는 사실에서 사랑과 여성주체의 충돌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대상화되고 소멸되는 여성인물의 위치를 확인하였다. 유혹의 집 떠나기 또한 자기실현의 욕망과 실패라는 유사한 궤적을 보인다. 유혹은 가정 안에서의 역할과 위치로만 설명되거나 서열화되는 여성의 다른 가능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매개이지만, 축적과 소유에 집착하거나 그 실현을 전적으로 남성권력에만 의존함으로써 한계를 드러낸다.

46) 정현기, 위의 글, 151쪽.

사랑과 유혹을 통해 주체의 욕망을 발견한 이들은 집이라는 경계를 뛰어넘는 데는 성공했으나 남성의존적 사랑과 권력이라는 틀에 스스로 갇혀버린 셈이다.

다음으로 모욕과 수치의 장소인 집을 떠남으로써 개인차원의 자존을 회복하는 두만 어미와 금녀의 집 떠나기를 살펴보았다. 집은 딸을 팔아 넘긴 비정한 아버지를 상징하거나 제국주의 순사가 위생을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는 장소로 묘사되며, 집 떠나기는 이에 대한 저항과 각성을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 두만어미는 스스로 모욕을 극복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실현시켜 체모를 되찾았으며, 아버지와 애인에 의해 팔려감으로써 수동적으로 집을 떠나던 금녀 역시 길 위에서 자신의 존엄을 인식한다. 이들은 집 떠나기를 통해 스스로가 행위주체가 된 삶의 존엄성을 각성한 것이다.

세 번째는 명희, 인실이 드러내는 공적 차원의 집 떠나기를 살펴보았다. 이들의 집 떠나기는 피해자라는 수동적 지위에서 벗어나 자존과 존엄을 자각하고 실천하며, 나아가 사회적 책임과 공적 자아의 각성으로 그 차원을 확장하였다는 의의를 지닌다. 하지만, 독립운동이란 대의와 기부금 기탁으로 귀결되는 이들의 집 떠나기는 사건 혹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기보다는 길 위에서 풍문처럼 제시되기에 다소 추상적이고 관념적이라는 한계를 드러낸다.

마지막으로 윤씨부인과 서희의 집 떠나기를 살펴보았다. 윤씨부인에게 있어 집 떠나기는 여성성의 노출이며 집으로 돌아오기는 오염된 정절과 모성을 비밀로 봉합하고 주체가 되는 것을 의미하지만, 서희의 집 떠나기는 당주-되기와 여성-되기를 포괄한다는 의의를 지닌다. 윤씨부인에게서 시작된 집 허물기와 길 내기는 별당아씨를 거쳐 서희에게서 완성된 것이다. 그녀는 집을 찾음으로써 자기 존재를 증명하는 한편, 신분, 계층의 벽을 허물어냄으로써 집과 길을 통하게 한다. 그녀는 집 떠나기를 통해 자아와 세계를 발견하며 이에 그치지 않고 이를 통해 집을 변

화시키고자 한 것이다.

이상에서 여성인물의 집 떠나기 모티프는 여성이 주체화되는 경로를 입체적으로 파악하게 하는 유효한 매개임을 알 수 있었다. 가부장제는 집을 억압공간으로 만들고 여성은 집 떠나기를 통해 권력에 대항한다. 길을 떠남으로써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기 시작한 여성인물들이 개인의 존엄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각성을 거쳐 가부장적 권력의 장소인 집 자체를 허물어내기에 이르는 전 과정을 통해 집 떠나기는 단순한 장소이동이 아니라 가부장제의 억압에 대응하여 이를 벗어나려는 노력이자 저항이며 나아가 가부장제 자체를 바꾸어내는 능동성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고문헌

- 김경일, 『여성의 근대, 근대의 여성』, 푸른역사, 2004.
- 김미현, 『젠더 프리즘』, 민음사, 2008.
- 김성희 · 성은애 · 이명호, 『『토지』에 나타난 여성문제 인식과 역사의식』, 『여성』 제3호, 1989, 231~63쪽.
- 김치수, 『박경리와의 대화-소유의 관계로 본 한의 원류』 『박경리와 이청준』 민음사, 1982.
- 문은미, 『페미니즘 사전: 가부장제』, 『여/성이론』 제2호, 2000.
- 박경리, 『문학을 사랑하는 젊은이들에게』, 현대문학, 2002.
- 백지연, 『박경리의 『토지』-근대체험의 이중성과 여성 주체의 신화』, 『역사비평』 1998 여름, 335~352쪽.
- 송호근, 『삶에의 연민, 限의 美學』, 『작가세계』 1994 가을, 46~64쪽.
- 이 경, 『질병의 은유로 『토지』 읽기』, 『현상과인식』 제32권 4호, 2008 겨울호, 110~129쪽.
- 이미화, 『박경리 『토지』에 나타난 여성하위주체의 저항』, 『한국문학논총』 제51집, 2009, 235~260쪽.
- 정호웅, 『『토지』의 주제-한(恨) · 생명 · 대자대비(大慈大悲)』 『한 · 생명 · 대자대비』 솔출판사, 1995.
- 조윤아, 『공간의 성격과 공간 구성』 최유찬 외, 『토지의 문화지형학』 소명출판, 2004.
- 주미사, 『실제적 여행기에서 상상의 여행기로』, 『불어불문학연구』 제50집, 2002, 531~558쪽.
- 하응백, 『비극적 삶의 초극과 완성: 『토지』론』, 현대문학, 제471호, 1994, 362~377쪽.
- 허연실, 『박경리 <토지>에 나타난 “민족모성”과 비체 - 유인실의 “주체되기”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제53권, 2013, 341~361쪽.

허 윤, 『여성들의 여행』, 『여/성이론』 제17호, 2007 겨울, 198~207쪽.

가스통 바슐라르, 곽광수 역, 『공간의 시학』, 민음사, 1990.

클로디 아멜, 이세진 역,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의 오뒷세이아』 열린 책들, 2014.

Yi-Fu Tuan, 구동희 · 심승희 역, 『공간과 장소』, 개정판, 대운, 2007.

Howe, Linda, "Narrative of Survival," *Literary Review*, 26, 1982.

Pearce, Lynn, *Reardng Dialogics*, Lancaste: Lancaste University Press, 1994.

Steadman, Jennifer B, *Traveling Economies: American Women's Travel Writing*, Granville: The Ohio University Press, 2007.

<Abstract>

On Narratives of Travelling Women in Park, Kyung-ri's 『Toji』

Lee, Kyung

In traditional Korea, leaving home and traveling was hardly allowed to women, who were expected to stay home and take charge of all the domestic affairs under the patriarchal dominance of men. It was the reason why women's traveling used to have special meanings in that time. This paper tries to explore into women's travel episodes of Park, Kyung-ri's 『Toji』. The episodes reveal various modes of patriarchal violence against women, and women's reactions to such violence, along the way of which women characters could achieve their *Building*(growth). The patriarchal dominance system had distorted women's homes into spaces of violence and oppression, against which women have responded by leaving home and traveling to other places. Leaving home was a kind of accusation of violence which prevailed all over the male-dominated society, where women's travels were equivalent to escaping from the androcentric relationship. Such episodes went further: they could make valuable achievement to find out their self-identities and the world for their own lives, during and after the travel. Sometimes, their journeys posed some wide spectra of prospective feminist visions to re-construct traditional home and domestic systems. The women characters, who could make their own first progress in revealing their desires through leaving

home, began to be aware of their dignities as human beings and their social responsibilities as equal members of the society. Such awareness could, in turn, make them deconstruct the existing homes, which were nothing but the spaces where the patriarchal power relationships prevailed. At this point, it can be reminded that women's travels in the novel are not only just changes of the place of their residence, but also forms of reaction to and methods of resistance against the patriarchal oppression: Women can get their own activeness to destruct the patriarchy and reestablish their own way of lives.

Key Words : Park Kyung-ri, Toji(the Earth), Travel, Growth and Anti-Growth, Romantic Love

■ 논문접수 : 2015년 3월 13일

■ 심사완료 : 2015년 4월 14일

■ 게재확정 : 2015년 4월 20일